

01 교회소식

사랑과 권능의 공간 안에 ...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폭설이 그쳐 보호받고, '2018 뉴델리 국제도서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는 축복의 소식.

02 생명의 말씀

성령의 사역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깨우쳐 주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해 가신다.

03 기획특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04 간증

"주 은혜를 사모하니 축복받았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아 시력이 좋아진 이성운 집사와 주의 일에 힘씀으로 축복받은 이레나 집사 간증.

# 만민뉴스

제823호 2018년 1월 2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중국 화이난 지역, 강력한 폭설 멈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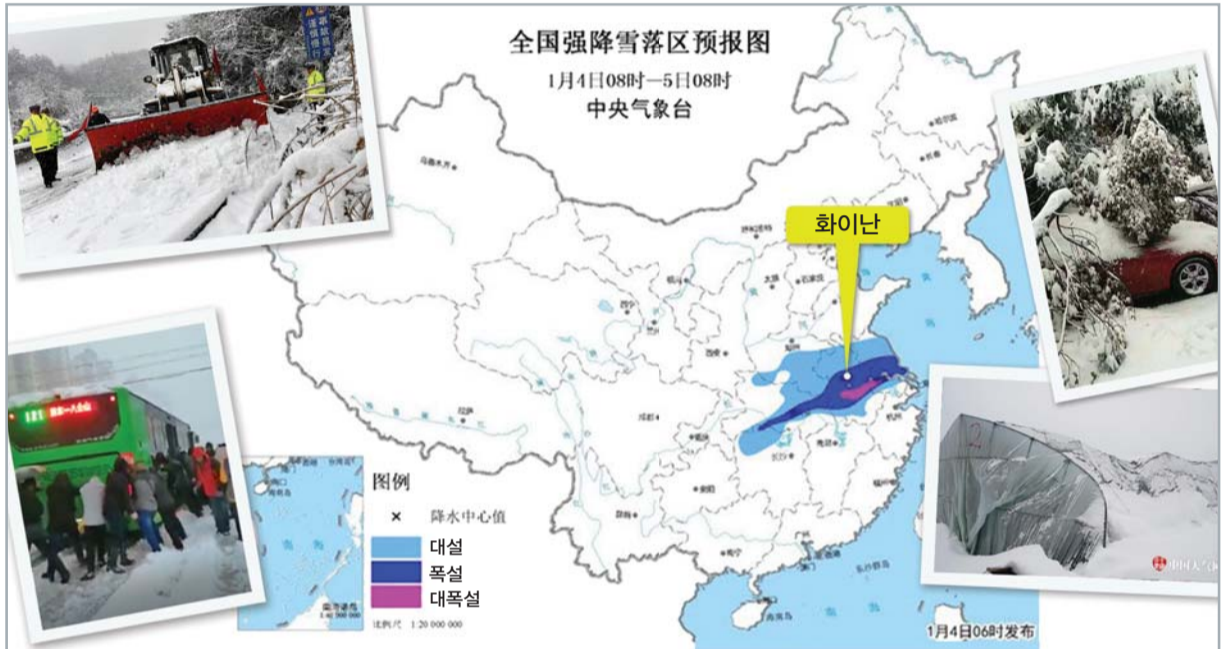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로 연초에 중국 화이난 지역에 폭설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다.

현지 기상청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목) 오전 8시부터 5일(금) 오전 8시까지, 중국 화이난(중국 중앙부 양쯔강 하류 유역에 위치한 안후이성 소재) 지역에 을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폭설이 예측되어 대설특보가 발령되었다. 이로 인해 사상자 4명, 한화 1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중국 화이난 지역에는 우리 교회 성도가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1월 4일 오전까지 이미 20cm 이상의 눈이 내렸고, 계속하여 많은 눈이 내려 폭설로 농작물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만민의 성도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이다.

이재록 목사는 1월 4일 저녁 6시 15분경(한국 시간),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를 해 주었고, 그 결과 눈이 점점 멈추더니 저녁 7시 전에 완전히 그치는 역사가 나타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월 5일(금) 오전 8시까지 대설특보가 발령되었으나 4일(목) 저녁 6시(한국 시간 7시)에 대설특보가 해제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지에서는 당일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으나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뒤 한 시간도 채 안 된 저녁 7시(한국 시간)에 눈이 완전히 그쳤다고 전해왔다. 이뿐 아니라 성도들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는 폭설에도 주저앉지 않고 모두 보호받았으며,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도 있었으나 성도들의 차량은 안전하게 보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오른쪽 사진).



### 아시아 최대 규모 '2018 뉴델리 국제도서전' 이재록 목사 신앙서적 전시

지난 1월 6일부터 14일까지 인도 델리 프라가티 마단에서 열린 '2018 뉴델리 국제도서전'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이 소개되었다.

뉴델리 국제도서전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도서전으로 올해에는 35개국, 800개 출판사가 참가했으며, 120만여 명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델리만민교회(담임 김상휘 목사)에서는 이재록 목사

의 저서를 출판, 전 세계에 유통하는 도서출판 우림북의 인도 현지 협력사 MSS 출판사 부스에 이 목사의 힌디어판 『십자가의 도』, 『지옥』, 『나의 삶 나의 신앙』, 영어판 『천국』, 『영혼육』 등을 전시하여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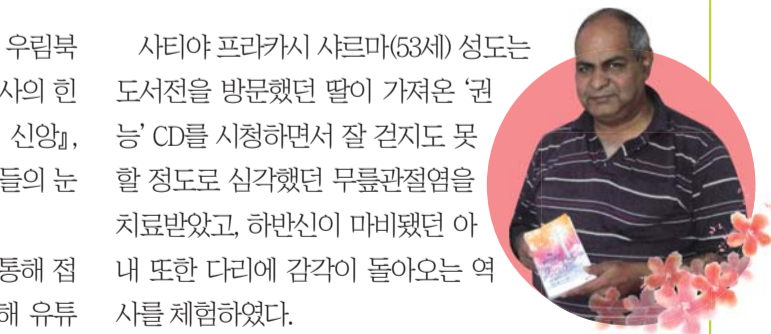
이 외에도 이 목사의 저서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한 힌디어 프로그램을 비롯해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물과 '만민뉴스'를 홍보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목사의 권능이 담긴 영상물을 상영하여 부스를 방문한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 도서전을 통해 이 목사의 기도로 치료받은 간증들과 성령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티야 프라카시 샤르마(53세) 성도는 도서전을 방문했던 딸이 가져온 '권능' CD를 시청하면서 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했던 무릎관절염을 치료받았고, 하반신이 마비됐던 아내 또한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였다.

아다쉬 와만(25세, 아랫사진 왼쪽) 성도는 선천성 뇌성마비로 영구 장애 판정받은 사촌 동생(링쿠, 22세)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 도서전을 방문하여 이재록 목사에게 관해 듣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델리만민교회를 방문해 기도받은 사촌 동생은 난생 처음으로 걸을 수 있었고, 스스로 식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고린도전서 2:10)

# 성령의 사역

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구세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정말 의인처럼 살기 위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의인처럼 의롭게 산다는 것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진리를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며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요 14:26, 16:13).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와 주의 종이라고 하면 성도들이 죄를 버리고 의 가운데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 2. 보혜사 성령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간 살면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역하셨지만, 성령의 사역은 인간 경작이 마쳐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이 있음을 외치실 수밖에 없습니다(마 12:18).

오늘날 세상이 점점 더 악으로 관영해 지니 사람들의 양심도 더욱 악으로 물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심판에 대해 무뎠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한 번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어떻게든 구원은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며, 심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나는 믿으

니가 구원받겠지.' 하며 살아가지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매 순간 성령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말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의 말과 행동을 하는 삶으로 변화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다면 결코 두려운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행복한 상급심판이 됩니다. 장차 백보좌 대심판의 자리에 서는 날,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3.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경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며 깨우쳐 주십니다(고전 2:10; 롬 5:5).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오래 참고 또 참아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지 깨우쳐 주시지요.

이 제단은 개척 이래 지금까지 영의 깊은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풀어 가르쳤고 영의 세계를 본 듯이 만진 듯이 나타내 보여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더 느끼며 달려갈 수 있도록 영의 세계를 이 땅에 펼쳐 보여 왔지요.

또한 수많은 권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근본에 대해 풀어 주었기에, 많은 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아비의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지요(요일 2:14). 성령이 하나님의 근본과 마음에 대해 알려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과 마음에 대해 깨우치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지요(롬 8:27).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 죄악에 포로 된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고, 죄의 짐에 눌려 사망으로 가는 이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해 주는 등(눅 4:18-19)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전하는 복된 사역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온 땅 가득히 펼쳐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돕는 분’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도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알려 주셨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 된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요 14:17).

그러면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성도들을 어떻게 돕고 계실까요?

## 1. 보혜사 성령은 '의'에 대해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운명하신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어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승천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같은 기도가 필요하다. 자신의 성결은 물론, 부르짖는 기도의 향이 천군천사를 움직여 공중 권세를 파하고 어둠의 진을 깨뜨릴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점검해 본다.

## 정녕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나요?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므로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랑으로 간구해야 한다.

성경을 보면 에스터 왕비는 멸망할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이는 자칫 죽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한 일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단 9장). 우리의 기도 역시 사랑의 기도라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딤후 2:4)의 애절한 마음을 알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뉴스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소식을 들으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으로 뜨거워질 것이다. 만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

람이 자신의 치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응답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 사랑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긍휼하심을 입으면 능히 그 응답을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뜨겁게 기도하게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물, 주님의 심장, 목자의 마음으로 절절한 기도를 울릴 수 있게 함으로 신속한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실한 기도를 올리고 있나요?

'진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며 성실함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충만함이 식어질 때는 무덤덤한 마음이 되어 늘 기도하던 내용을 입술로만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늘 하는 기도제목이라 하여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심을 다해 성실함으로 간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구체적인 항목들이 떠오른다. 그래서 행사를 주관하는

일꾼들과 재정, 날씨, 무엇보다 참석하는 영혼들이 은혜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된다.



이처럼 진실한 기도를 하면 성령의 감동함 속에 기도할 내용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중언부언하지 않고 섬세하게 기도할 수 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

도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자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기도제목에 집중해 힘써 기도하지 않으니 자신이나 가족이 응답받아야 할 문제가 떠오르는 것이다. 또 자기 기도를 할 때는 힘써 부르짖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뜨겁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며 응답의 비결을 알려 주셨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믿음의 성장도 신속히 이룰 수 있다.

##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선한 기도의 향을 올리고 있나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한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응답받지 못한다. 더욱이 행함으로 범죄했다면 더더욱 응답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1장 10절을 통해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탄식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경계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잠 8:13)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된다(살전 5:22).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마음에 품을 수도 없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에 맞지 않는 일을 만나면 여전히 서운해하고 불편해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내 뜻과 맞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상대가 마음에 걸리고 다투며 헐기 내는 일이 있다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열납될 수 없다.

아직 믿음이 어린 초신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을 고려하여 그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지만, 진정 믿음이 있다면 선과 사랑 자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한 향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적 장수가 되어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음의 성결을 이루며 사랑의 기도, 진실한 기도, 선한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까지 위력 있는 불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더해져야 권능의 일꾼이 될 수 있다.

<p>2018 HAPPY NEW YEAR</p> <p><b>주요 프로그램 안내</b></p> <p>2018.1.21~2018.1.27</p>	<p><b>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의 총만은</li> <li>참된 성전</li> <li>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li> <li>공간</li> <li>위로부터 난 지혜 3-8</li> <li>천국 36-42</li> <li>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2</li> <li>믿음을 책망하시니 8-14</li> <li>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3-4</li> </ul>	<p><b>GCN TV 설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추인 어둠(이수진 목사)</li> <li>자기 발견 4 (이미경 목사)</li> <li>영의 세계 78 (이희선 목사)</li> <li>욥기 강해 28 (신동초 목사)</li> <li>6계명 4 (정구영 목사)</li> <li>사랑의 증표 (정리라 전도사)</li> </ul>	<p><b>예능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능 스페셜 12</li> <li>마지막 때 12</li> <li>모두 드려요 56</li> <li>창조와 과학 22</li> <li>옛날 옛적에 (시즌2) 9</li> <li>내 마음의 찬양 35</li> <li>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91</li> <li>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7</li> </ul>	<p><b>해외성회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상 6</li> <li>인도 연합대성회 1</li> <li>믿음으로 걸어온 길 18</li> </ul>
	<p>전국 어디서나 <b>olleh tv 882번</b></p>	<p>세계 어디서나 <b>RokuTV</b></p>		

저는 중학생 때 선배에게 맞아 왼쪽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퐁퐁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부은 눈은 가라앉았지만, 그 충격 때문인지 18세 때부터 왼쪽 눈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5세에는 운전할 때 고속도로 표지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는 생각에 결국 안경을 쓰기 시작하였지요. 그 뒤 오른쪽 시력마저 점점 떨어져 25년간 안경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교회 등록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시력이 회복된 수많은 간증을 보아왔기에 저는 2014년부터 시력 회복을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당회장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앞으로 눈이 안 좋은 성도들이 많이 치료받게 될 것이니 준비하라고 하셔서 사모함으로 기도하였지요. 또한 ‘만민 하계수련회’ 기간 내내 봉사하며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시력은 좋아지지 않았습다. 비록 치료받지 못했지만 저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웠지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변함없이 치료



##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이성윤 집사 (49세, 2대대 12교구)

받기를 소망하며 3년간 수련회 때마다 봉사하였습니다. 직업상 저는 늘 바깥에서 일하다 보니 비나 눈이 올 때는 안경에 물이 튀어 잘 볼 수 없었고 그때마다 더 간절해졌습니다.

2017년 12월, 당회장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공의를 쌓아주시는 7년이 되는 성탄절이 다가오자 제 마음을 들뜨고 설

렷습니다. 12월 17일 이른 아침, 당회장님과 악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데 아내가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휴지로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렸습니다.

당회장님과 악수를 한 뒤, 주일 대예배 때 화면이 좀 흐릿하게 보인다고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후 저녁예배를 드리는데 눈앞이 심하게 흐려지면서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저는 ‘안경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안경을 맞춰야 하나?’ 생각하며 눈물을 닦기 위해 안경을 벗은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화면의 자막이 너무나 선명했던 것입니다. ‘어? 왜 이러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몇 번이고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보았는데 안경을 벗을 때 오히려 화면이 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당회장님과 악수할 때 이미 시력이 좋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후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두 달 전 다른 곳에서 검사했을 때 0.2였던 양안 시력이 0.9로 측정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와! 시력이 좋아졌네요!”라고 말하자 의사는 “시력은 나빠지지 좋아질 수는 없어요.”라며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요.

하지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시력이 순간에 좋아졌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시력이 회복된 그날, 몇 년 전에 생긴 이명 증세까지 함께 치료된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진한 감동이 되었지요.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주의 일에 힘쓰니 직장에서도 축복받고 있어요”

이레나 집사 (39세, 해외교구)

저는 친할머니 덕분에 모태 신앙으로 주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가족과 함께 사할린으로 이주한 뒤 당시 러시아에 기독교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두세 가정을 모아 가정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영안이 열린 할머니는 천국 얘기도 해주셨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린다고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한국에 권능의 목회자가 나타나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1998년, 드디어 할머니의 꿈이 이루어져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지인의 전도로 만민중앙교회로

인도받아 저도 2009년부터 다니면서 기사와 표적, 권능을 행하시는 당회장님을 보며 바로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분임을 확신하고 너무 감사했지요. 해외교구에 소속된 저는 2012년부터는 교구장님이 러시아어 권 영혼들을 심방할 때 동행하

며 통역으로 봉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제겐 큰 행복이었지요. 좋은 일자리가 생겨도 심방하는 데 지장가지 않는 쪽을 택하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13년 어느 날, 꿈에 당회장님께서 수고가 많으며 식사는 잘하는지 직장생활은 힘들지 않은지 자상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신기한 꿈이라 생각했는데 이후 제가 원하던 서울 소재 병원에 채용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환자들의 통번역 매니저 역할을 하며 전보다 2배가 훨씬 넘는 연봉을 받게 되었고 통역 능력을 쌓고 마음 그릇도 넓힐 수 있었지요. 또 한 번은 꿈에 당회장님께서 러시아 구역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계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꿈을 꾸 뒤, 해외교구 러시아 구역장과 주일 저녁예배 러시아어 통역이라는 귀한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7년 5월에는 러시아어 통역자로서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콘퍼런스 준비 출장을 동행하게 되어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세밀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열매로 회사에서 승진하여 일반 코디네이터에서 국제부를 맡은 주임이 되었지요. 영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권 매니저 관리를 총괄하게 되었고, 취득하기 어려운 허가증들을 받음으로 수입도 증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제14회 WCDN 러시아 콘퍼런스’ 시에는 통역자로 참석하여 하나님 권능의 치유 사례들을 의학으로 입증하는 지식인들을 보며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영육 간에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330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탄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D ☎031)905-2419, 010-2276-1014